

보도시점 5.15.(금) 조간 &lt; 5.14.(목) 12:00 &gt;

##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, K-뷰티 글로벌화 정책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 경신

- '26년 1분기 中소 온라인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8.2% 증가한 3억 달러
- 화장품 온라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4.2% 증가, 역대 분기 최고 실적

중소벤처기업부 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5월 14일 (목) 발표한 '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동향(잠정치)'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이 1분기 기준 최초로 3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.

### ① 중소기업 온라인 총 수출액 및 수출기업

'26년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8.2% 증가한 3억 달러로, 역대 1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.

\* 1분기 中소 온라인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/%) : ('24) 2.2(+35.6), ('25) 2.2(△0.5), ('26) **3.0(+38.2%)**

특히 온라인 총 수출액 중 중소기업 수출이 70.0%에 달해, 온라인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도 전년동기대비 14.4% 증가한 2,735개사로,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.

\* 온라인 수출기업수/증감률(개사/%) : ('24.1Q) 2,193 → ('25.1Q) 2,390 → ('26.1Q) **2,735(+14.4)**

### ②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품목별·국가별 특징

가장 큰 비중 (65.8%)을 차지하는 화장품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74.2% 증가한 2억 달러로,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. K-뷰티의 높은 인기와 '25년 발표된 K-뷰티 지원 대책\*의 정책 효과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. 또한 미국 (+60.8%)·중국 (+90.8%)뿐 아니라, 영국 (+282.8%)·네덜란드 (+133.8%) 등 유럽 수출이 크게 증가\*\*했다.

\* 「K-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」 ('25.11), 「K-뷰티 중소·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」 ('25.5), K-뷰티 펀드 출범 ('25.4)

\*\* 1분기 화장품 수출액/증감률(백만 달러/%) : (미국) 90(+60.8), (중국) 19(+90.8), (영국) 18(+282.8), (일본) 16(+25.3), (네덜란드) 15(+133.8)

또한, '25년 발표된 온라인 수출 대책\* 및 해외 온라인 장터 입점, 자체 온라인 판매 누리집 구축·판매지원 등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뷰티(미용제품) 외에 축산가공품 등 품목의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\* 「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」(25.11)

온라인 총 수출액의 7.7%를 차지하는 의류는 해외 온라인 소비 확대에 힘입어 2,300만 달러를 기록했다. 특히 중국은 유아용 턱받이 등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, 수출 600만 달러 (+96.4%)를 달성했다.

\* 1분기 의류 수출액/증감률(백만 달러/%) : (일본) 8(△19.7), (중국) 6(+96.4), (미국) 4(△40.9), (홍콩) 1(+145.3), (대만) 1(+104.0)

컴퓨터 (온라인 총 수출액의 6.1%)는 1,800만 달러로,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장터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포토프린터(사진출력기) 수출이 꾸준히 이어지며 미국 (900만 달러), 네덜란드 (300만 달러) 등 주요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.

\* 1분기 컴퓨터 수출액/증감률(백만 달러/%) : (미국) 9(+6.0), (네덜란드) 3(+114.6), (영국) 2(△6.4), (중국) 1(△67.2), (캐나다) 1(△36.1)

축산가공품 (온라인 총 수출액의 3.1%)은 전년동기대비 172.1% 증가한 1,000만 달러를 달성했다. K-뷰티 확산과 함께 이너뷰티 제품(먹는 미용·건강관리 제품)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체중감량용 제품의 對(대) 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.

문구 및 완구 (온라인 총 수출액의 3.1%)는 900만 달러로, 독일,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상품·핸드폰케이스와 미국 대상 포토프린터 (사진출력기) 필름 수출 호조가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.

< '26년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 상위 5대 품목 (단위: 백만 달러, %) >

품목	화장품	의류	컴퓨터	축산가공품	문구 및 완구
수출액	200	23	18	10	9
증감률	+74.2	△2.2	△12.2	+172.1	+22.1
비중	65.8	7.7	6.1	3.1	3.1

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“온라인 시장은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, 정책 지원 효과가 내수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”며, “내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, 온라인 판매를 넘어 현지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본 동향자료는 관세청 수출통관자료를 기초로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실적 분석
- 온라인 수출 집계는 정식통관에서 수출신고서상 '거래구분'이 전자상거래인 것을 중기부 온라인 수출로 계상
  - \* 거래구분 '15(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)', '17(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물품)'의 건
- 수출기업수는 수출자(화주) 기준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, 기업규모 구분(대·중견·중소)은 발표당시 가장 최근 기업규모별 변동현황을 반영하여 작성
  - \* (대기업) '26.2월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반영, (중견기업) '24년 결산 기준(산업부)

담당 부서	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동우 (044-204-7500)
		담당자	사무관	정지수 (044-204-7516)
			전문관	성지연 (044-204-7514)

## 참고

## '26년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수출

\* 온라인수출 : 관세청 정식통관자료 중 수출신고서상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건을 기준으로 분석

□ (총괄) '26년 1분기 온라인 수출은 화장품(비중 65.8%)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,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초로 3억 달러 돌파

\* 역대 1분기 온라인 수출액(억 달러%) : 역대1위('26) 3.0(+38.2) → 역대2위('25) 2.2(△0.5) → 역대3위('24) 2.2(+35.6)  
 中 全 體 수 출 內 在 線 上 수 출 比 重 (%) : '24.1Q 0.83 → '25.1Q 0.81 → **'26.1Q 1.02**

→ 특히, 온라인 총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이 70.0%를 차지

○ '26년 1분기 온라인 수출기업수는 2,735개사(전년동기대비 +14.4%)

\* 온라인 수출기업수/증감율(개사%) : ('24.1Q) 2,193 → ('25.1Q) 2,390 → ('26.1Q) **2,735(+14.4)**

□ (품목) 화장품은 온라인 플랫폼(아마존, 월마트 등) 내 K-뷰티 인기로 對美 수출이 약 45% 차지하나, 최근 영국·네덜란드 중심으로 크게 상승

\* 온라인 화장품 수출국 비중(%/25.1Q→26.1Q) : (미국) 48.7 → 45.0, (중국) 8.7 → 9.6, (영국) 4.0 → 8.8, (일본) 11.2 → 8.1, (네덜란드) 5.6 → 7.5

< '26년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 상위 5대 품목 (단위: 백만 달러, %) >

품목	화장품	의류	컴퓨터	축산가공품	문구 및 완구
수출액	200	23	18	10	9
증감률	+74.2	△2.2	△12.2	+172.1	+22.1
비중	65.8	7.7	6.1	3.1	3.1

□ (국가) 미국은 화장품 수출 호조세 지속, 또한 K-이너뷰티 열풍으로 축산가공품(다이어트식품) 온라인 성장세 (미국 +296%, 중국 +1,291%) 급증

○ 對 영국(3Y CAGR +152.8%), 네덜란드(3Y CAGR +273.0%)는 화장품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며, 유럽 시장의 온라인수출 핵심 허브로 부상

< '26년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 상위 5대 국가 (단위: 억달러, %) >

국가	미국	중국	일본	영국	네덜란드
수출액	129	38	30	23	19
증감률	+25.1	+43.4	+3.1	+191.6	+119.1
비중	42.4	12.5	9.9	7.6	6.3